

여래의 깃발이여

흔히 '위기'는 또한 '기회'라는 말이 회자된다. 모든 위기에 필경 그 위기를 몰아온 원인이나 병리가 결려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 위기의 원인이나 병리를 다스리려면 새로운 정도회귀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뜻에서일 터이다.

그러나 오늘의 이땅엔 위기의 신음 소리만 어지럽다. 구태여 한보사태나 대통령의 아들이나 하는 현실의 소재들을 끌어들이 필요도 없다. 부패의 악취와 정경유착, 경제의 추락과 시민의식의 미성숙 따위가 한탄되어서도, 극복과 전환의 등불은 보이지 않는다.

또 다른 하나는 불경에 보이는 바리문해자의 깃발이다. 그도 역시 대낮에 햇불을 들고 다녔으나, 디오게네스와는 다른 뜻에서였다고 한다. 현자로 변신한 부처님의 물음에 그 수행자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하도 우매해서 밝음을 믿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햇불을 들어 그들의 앞을 비추주는 것이오."

불경은 그 오만과 어리석음을 "장님이 촛불을 든 것과 같아, 남은 비추지만 자신은 밝히지 못하네"라고 노래하고 있지만, 오늘의 안타까움은 그 오만과 어리석음의 깃발마저 그렇게 한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어떤 연극을 방불케 하는 그따위 등불의 수작에 빨라들 때는 아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길의 잠재우는 스스로의 등불(自燈明)의 법의 등불(法燈明)을 꺼둘라야 할 때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

겨레가 신음하는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대전환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또 무엇인가. 탐욕의 불길이다. 성냄과 원망의 불길이다. 그리고 어리석음의 불길이다. 그 번뇌의 불길을 다스려야만 위기는 기회의 이름을 획득하게 된다. 대전환이 요구하는 새 불과 새 질서로 짜여 지게 된다. 물론 불법의 세계인 정도는 멀다. 어찌면 원성을 허락하지 않는 영원한 추구의 과녁이 정토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불법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그만큼 일치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래의 깃발을 받드는 이들이여. 아니, 여래의 깃발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여. 이런 제발 산간에서 펼쳐나와 현실의 세계에도 법의 등불을 더욱 밝혀주기 바란다. 등불의 밝힘에 더욱 정진해주기 바란다. 등불이 꺼진 세계엔 위기와 기회의 번증범이 살아나지 못한다. '파사현정'의 일대전환도 기약되지 않는다. 아, 여래의 깃발이여, 등불이여.



김중배 <참여연대 공동대표>

음식쓰레기 북동포 굶주리는데...

하루 1만5천t...연간 8조원 1만t 식량 북기아 해소



07일 서울 종로구 위생업협회의 회원들이 탑골공원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결의대회를 가졌다.

4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권오기 통일부총리가 "김일성이 생전에 '북한에 하루 1만톤의 식량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루에 버리는 음식쓰레기가 1만5천톤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회기적인 방안을 마련해보라"는 고건 총리의 지시로 토론회는 끝을 맺었다.

음식물쓰레기는 수분과 염분이 다량 함유돼 불에 태우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매립하더라도 침출수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악성 폐기물'이다. 하루 평균 18만여톤이 발생한다.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8조원어치,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0%가 넘는 양이다. 사료 또는 퇴비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2%에 그치고 있다.

각 시·도와 환경부는 '음식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를 정도로 이 문제에 골몰하고 있다. 경기도는 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화, 재활용시설 운영 예산지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음식쓰레기 비중은 90년 27.4%에서 95년 31.6%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음식물쓰레기의 주발생원은 음식점(42%)과 가정(41%), 시장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소(13%) 등이다. 여기에서 줄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몇가지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주방싱크대에 스타킹이나 양말을 걸어놓고 음식물쓰레기를 물기가 빠질 때까지 넣어둔다. △음식점에서는 양파 등을 망시형 자루를 사용하면 물기를 제거할 수 있다. △과일껍질은 그대로 버려도 된다. △국물이 많은 음식은 국물을 먼저 하수구에 버린 뒤 물기를 뺀 건더기를 봉투에 넣어 버린다.

음식쓰레기 줄이기는 절약은 물론 처리비용 절감의 경제적

불교의 눈 "오관계 생활화 합시다"

도원스님(천태종 명락사주지)은 "우리가 1년 동안 버리는 음식량이면 굶주리는 북동포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먹다 버리는 일은 최악을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적당량의 음식섭취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양할 때 불자들이 외우는 오관계(五觀戒)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의 좋은 가르침이다. "음식을 받고는 다섯가지로 살펴보고, 공력이 얼마나 들었으며 어찌하여 여기 왔다. 내 도덕과 내 행실이 이 공양을 받을만한가. 나쁜 마음 굶주려면 탐진치가 으뜸일세, 여원 물 낚는데는 다시 없는 약이리니. 도를 이루고자 이 음식을 먹시오리." (사분행 행사초(行事鈔))

<유교경>에서도 "음식을 대할 때에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며, 좋은 것은 취하고 맛있는 것이라고 싫어하지 말며, 마땅히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만 먹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지계

금주

파계

과학재단 설립 150억 출연

●...대성그룹 김수근회장이 그룹창립 50주년(5월 10일)을 맞아 1백50억원을 출연해 해양과학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앞으로 에너지공학 건설 정보통신 환경 육림사업과 관련된 기술분야의 인재양성 및 학술연구 등을 주로 지원한다. 과학기술처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내년 1월경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벌인다.

노인들 용돈모아 장학회 설립

●...경기도 김포군 김포노인대학 할아버지 할머니 2백여명이 지난 1년 동안 용돈을 모은 7천3백만원으로 2일 윤리장학회를 설립했다. 지난해말에도 군내 7개 중학교에 3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학교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 사고로 숨진 어린이의 학부모 박기환씨(41)가 3일 아들이 다니던 초등학교를 방문, 1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박씨는 또 위로비와 보상금도 학교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건교부, 점심 5천원 이하로

●...건설교통부가 최근 과소비추방에

공직자들이 앞장서자는 취지로 정부제2 종합청사에 근무하는 건교부 직원 9백여 명에게 5천원 이하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주변 업소 60여곳의 리스트와 메뉴를 자세히 소개한 소책자를 배포했다. 건교부 직원들은 점심식사를 아낀 돈을 저금통에 모아 사회복지시설에 보내기로 했다.

부산시, 장애인 민원宅配

●...부산시는 1일 등록장애인 2만6천 9백여명에 대해 6월 1일부터 주민등록과 호적 등-초본 등 20종의 민원서류에 대해 동사무소에 전화신청하면, 담당직원에 또는 통장이 집까지 배달해주는 '장애인 민원택배'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촌 문화거리로 선포

●...김병수 연세대총장 등 각계저명 인사 26명으로 구성된 '신촌문화거리조성추진위원회'는 7일 첫 사업으로 연세대 앞 신촌거리에서 '문화선포식'을 갖고 신촌을 문화거리로 선포했다. 신촌일대 대학은 물론 인근 5개 초중고교 교장과 학생대표들도 참석해 교육환경을 해치는 향락문화를 바로잡자는 운동에 동참했다.

정부예산·기금 낭비실각

●...재정경제원은 6일 남강댐 김해공항 확장, 인천국제공항 새만공방조제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국책사업의 공사비 예산이 사업초기 계획보다 최고 5배까지 불어났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6일 정부기금에 대한 감사결과 변경운용 낭비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각종 기금의 폐지-통합운용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고속도 휴게소 식품 비위생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전국 92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휴게소 13곳과 유통식품 12건을 적발해 해당 시군구에 통보했다고 6일 발표했다. 위반 휴게소들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무허가 원료 사용, 병장상태 불량, 변질된 식품 등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꽃박람회 부실시공·무질서

●... '97 고양 세계꽃박람회장의 '주제관' 곳곳이 7일 내린 비로 하천처럼 변해 관람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쓰레기더미와 음료수 등 각종 물건값이 많게는 시중가의 5배에 이르고 있어 박람

회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아동복에 가짜 외국상표

●...유아·아동복을 생산하지 않는 외국 유명 의류상표를 부착, 국산 유아·아동복을 생산해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일부 의류업체들이 피에르가르맹 아놀드파마 등 유아·아동복을 생산하지 않는 외국상표를 부착해 판매하고 있다.

1만원권 위폐 잇따라 발견

●...마산과 창원에 이어 부산과 대구에서도 1만원권 위조지폐가 5일 잇따라 발견됐다. 경찰은 지금까지 발견된 위조지폐는 동일범이 컬러복사한 뒤 야간을 이용해 택시요금과 물건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중국산 참기름이 국산으로

●... 값싼 중국산 참깨가루로 제조된 참기름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관련업체에 따르면, 내원식품의 '포소미 참기름'과 롯데대강의 '롯데델가 참기름' 등은 참깨대신 중국에서 수입한 참깨가루를 70% 정도 섞어 참기름을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2541 Buddha's Birthday

전법·교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                |
|-----------|----------------|
| 총재        | 이외운            |
| 이사장       | 정성도            |
| 상임이사      | 이정숙            |
| 원장        | 백운월            |
| 이사        | 배장운 배정길 유춘득    |
|           | 이용규 구자일 박종 이정명 |
| 감사        | 강정산 박충서        |
| 총무부장      | 법경             |
| 기획부장      | 명현 차장 윤 선      |
| 포교부장      | 현진 차장 이승우      |
| 사회부장      | 지암 차장 이덕범      |
| 규정부장      | 설산 차장 백금강      |
| 홍보부장      | 법능 차장 해 동      |
| 재정부장      | 송묘심 차장 한세천     |
| 편집부장      | 이혜옥            |
| 대한불교교장    | 박 중            |
| 법사동우회회장   | 배송암            |
| 연예인위원단장   | 남강수            |
| 무로직업안내    | 장정선            |
| 중앙정법원장    | 한광진            |
| 신월청소년독서실장 | 배정길            |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원 임원일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56-16 TEL : 964-8044, 8085 FAX : 965-3143

2541 부처님오신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비전! 동국100년

지금, 동국대학교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96년 교육개혁실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명문사학으로의 명성을 재확인한 민족사학 동국대학교-비전! 동국 100년 마스태플랜사업의 실천을 통해 21세기 세계문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 비전 1. 열린교육실현
- 비전 2. 캠퍼스 특성과 실현
- 비전 3. 다양한 투자채원의 확보와 연구기능의 사회참여강화
- 비전 4. 안·양방 의료협진체제 구축

\* 동국대학교 LA진출 - Dongguk Royal University '자비의 실천' 일환으로 18년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LA의 로얄한의과대학 및 부속한방병원을 인수하여 동국로얄대학교로 교명을 바꾸고 21세기 세계화의 기수가 되었습니다.



동국대학교 총장 宋錫球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吳綠園

본교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지인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증진케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한다.